



태권도진흥재단, 설천 호롱불마을 일손돕기

태권도진흥재단은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을 돕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8일 설천면 호롱불 마을을 찾았다. 이날 농촌 일손 돕기에는 태권도진흥재단 직원 30여 명이 동참해 하천 등지에 쌓여있는 부유물 제거를 비롯해 밭에 있는 페닐 수거와 부직포 깔기 등 마을 어르신들이 하기 힘든 육체적인 작업 위주로 진행했다. 호롱불 마을 박희숙 이장은 "일손이 꼭 필요한 시기에 젊은이들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최근 내린 많은 비로 하천 등지에 각종 쓰레기가 많았지만 업무가 나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 수거해 주었고, 밭에서도 구슬땀을 흘린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채희원 주임은 "농촌 일손 돕기는 지역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마을 어르신들께서 우리들의 서툰 동작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예쁘게 봐 주시는 것 같아 정말 기쁘고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참가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농촌일손 돕기를 비롯 사랑의 헌혈, 밑반찬 나눔 배달 지원, 행복 반차 봉사, 김장 담그기 등 공헌활동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 신덕면, 찾아가는 치매예방 건강교실 운영

신덕면이 지난 8일부터 방길경로당을 시작으로 면내 5개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건강교실은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총 5회에 걸쳐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경로당을 방문하여 진행되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을 설명하고, 치매 조기 감지의 중요성을 알려 치매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운영된다. 건강교실에서는 치매 예방교육과 함께 식물 테라피(다육심기) 프로그램을 실시해 유연성과 대뇌를 자극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이웃 주민들과 정서적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도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 대비 행동요령 안내 등 안전 교육과 함께 복지 위기에 놓인 사각지대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박남용 신덕면장은 "이번 건강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이 치매 조기 감지의 중요성을 알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기전대 뷰티디자인과, 맞춤형 지원 특강 진행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8일 뷰티디자인과 재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전공맞춤지원 전공관련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 프로그램은 '뷰티전문가를 위한 조향'을 주제로 뷰티디자인과 재학생 20명이 참여했다. 뷰티디자인과 특강에서는 향의 종류와 향이 가진 이미지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향수를 조향하여 나만의 향수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와 함께 스펀링 학습을 통한 향료별 특징을 학습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조향사 직업을 체험했다. 이를 통해 조향사라는 직업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졸업 후 진로의 직업군을 폭넓게 바라볼 것을 기대하며 진행되었다. 조덕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전공맞춤지원 특강을 통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 및 취업역량 향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제46회 전북 공예품대전 시상식

목질분야 '유토피아' 대상 · 도자분야 '다기세트' 금상 수상

공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공예품의 수출 및 판로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46회 전라북도 공예품대전 시상식이 지난 9일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시상식에 앞서 지난 1일 일철민 심사위원장(전주대학교 교수)을 비롯한 12인의 심사위원은 출품작 78점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진행했고, 50명의 입상자와 7점의 특별상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은 목질분야에 출품한 이선주씨의 '유토피아', 금상은 도자분야 김상근씨의 '다기세트', 은상은 섬유분야 신덕순씨의 '별을 스치는 비바라' 목질분야 김난희씨의 '사계', 동상은 도자분야 이경희씨의 '사월' 등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 밖에 장려상 12명, 특선 10명, 입선 20명, 특별상 7명이 각각 선정됐다. 입상자에게는 대상 200만원, 금상 100만원, 은상 각 70만원, 동상 각 50만원, 장려상 각 30만원의 상금이



특선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후원기관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이들에게는 제53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입선작은 전라북도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의 상장이 수여된다. 한편, 이번 공예품대전 시상식에서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위한 도내 공예인들의 염원을 담은 단체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김희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전북의 공예품이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기원한다"며, "도에서도 공예산업이 발전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진안 성수면 지사협, 어르신 반찬 지원사업 성행

진안군 성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정지호)는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영양반찬 지원 사업이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인 영양반찬 지원 사업은 성수면 사랑의 온도탑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을 통해 임마누엘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밑반찬을 준비하고, 배달하는 협력사업으로 홀로 사는 저소득 어르신들과 장애로 인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30명을 선정해 반찬배달과 더불어 지속적인 안부 확인등으로 정서적 안정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회성이 아닌 12월까지 매주 1회 정기적인 방문을 하고 있으며 3가지 반찬을 넉넉한 양으로 배달해 대상자들에게 안정된 식생활을 제공하고 있다. 정지호 위원장은 "취약계층 가정에 밑반찬을 건네며 안부도 확인 할 수 있어 안심이다"며 "앞으로도 불행이 필요한 분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주 면장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정성과 마음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성수면민 모두가 더불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영양반찬 지원사업 외에도 사랑의 행복다미만들기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박병래 부안군의원, 경제문화공헌대상 수상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원이 지난 8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경제문화공헌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국민문화나눔공동체와 (주)영영코리아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경제문화공헌대상'은 매년 지역사회 경제발전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소외계층의 행복지수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사회의 부문별 인물들을 선정하여 수상하고 있다. 수상자로 선정된 박병래 의원은 제9대 부안군의회에 입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5분 자유발언, 군정 질문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한 일일리펀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현장 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박병래 의원은 "군의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에서 주민들의 관심사들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을 뿐인데, 뜻밖의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모던테크 김성국 대표 부친,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지난 9일 2021년 2월 법인을 설립하고 회사 공장을 타지역에서 순창군으로 옮긴 (주)모던테크 김성국 대표의 부친 김용래씨는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저의 제2의 고향이다"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500만원을 기탁했다. 특히, 김용래씨는 기부금액의 30%인 담례품 150만원 상당을 순창 쌀로 지급받아 최영일 순창군수가 비전으로 세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 될 수 있도록 순창군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순창군 인계면에 위치해 직접 생산농량을 인증받고 디자인형울타리(난간·담장), 교량간간 블라드, 교량이음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주)모던테크는 2021년 6월 조달청 나라장터 소평몰에 등록을 완료하였고, 정읍지역에 있던 일부 공장을 2023년 2월에 순창으로 이전 확장하여 이원화 되어 있는 생산시설을 통합한은 물론 대표 가족들이 순창으로 이사와 거주할 곳을 마련하고 생활하고 있다. 김용래 씨는 "이들이 살고 있는 순창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하들이 사는 곳이 저의 제2의 고향이므로 순창이 살기 좋은 고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익산 예술융합마을연구소,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

예술융합마을연구소(대표 한유화)가 익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일 영등동 깊은 샘 작은도서관에서는 '하느님인 나만의 화병만들기'라는 주제로 20여 명의 중장년층 여성들이 참여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방보조금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소외 지역의 경로당,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체험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에 거주하는 문화활동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장년층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를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취미활동을 즐기고 동시에 잠재된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유화 예술융합마을연구소 대표는 "문화예술 수혜의 불



균형을 해소하고 중장년층 여성들의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정읍 시기동 새마을부녀회, 공유냉장고 밑반찬 기탁

정읍시 시기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순이)는 지난 8일 시기동주민센터 행복나눔 공유냉장고에 밑반찬(제육볶음)을 기탁했다.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직접 제육볶음을 만들어 개별 포장한 뒤 행복나눔 공유냉장고에 기탁했다. 이순이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기동주민센터에 설치된 행복나눔 공유냉장고는 지역민이 기부한 신선한 식재료와 가공식품을 공유해 취약계층 이웃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주평통 순창군 · 부산진구 자매결연 합동세미나

민주평통일지원회의 순창군협의회(회장 운영식)는 지난 9일 순창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양 지역협의회 자문위원 및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평통 순창군 · 부산진구 자매결연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세미나는 양 지역 자매결연 현황 보고 및 설문조사 강사의 최근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비전 주제로 통일특강 시간을 가졌다. 운영식 회장은 "지난 3월 부산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먼 길을 찾아와 주신 부산진구 자문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자매결연이 더욱 발전되고 서로의 깊은 소통의 시간이 되어 양 협의회가 서로 협력해 한반도의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두 협의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교대 4학년, 4주간 실무실습교육 마쳐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준)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4주간 실시한 '4학년 실무실습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실무실습은 4학년 273명을 대상으로 전주부설초, 군산부설초, 전주완곡초, 전주효천초 등 8곳에서 이뤄졌다. 교육생들은 실무실습을 통해 수업과 교직실무의 경험을 쌓고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하며 배움의 기회를 넓혔다. 더불어, 교육생들에게 학교와 학급 사무를 지도하면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군산부설초 실습협력학교 관계자는 "올해는 더욱더 예비교원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실습교육을 통해 대학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주교대 박병준 총장은 "4학년 학생들의 실무실습은 교육현장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